

檢-이상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 공방

“차명이 맞다” vs “내가 땅 주인”

檢 “상은씨가 관리하지 않은 3자 재산”

李 “목장경영·골재채취업 자금으로 매입”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놓고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맏형인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제3자 차명 재산’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이상은씨는 ‘내 재산’이라며 맞섰다.

이씨는 14일 서울 도곡동 흙을 벌 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같은 날 정상명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씨가 실소유주일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닙니다”고 뜻밖였다.

◇검찰의 판단 근거=검찰은 “서울 도곡동 땅의 이씨 지분은 제3자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라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이씨가 도곡동 땅을 사들인 돈과 판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해당 금원

이 이씨에 의해 직접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땅을 산 돈의 출처에 대해 이씨는 골재채취 및 현대건설 납품수익, 젖소판매 대금 등 7억8천만원이라고 밝혔으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땅을 판돈의 용처를 주제로 한 결과, 이씨가 직접 관리하고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단서들이 속속 드러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아울러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1천만~4천만원씩 97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계좌에서 15억 원이 빠져나갔지만 신용카드 내역 등에서 파악된 이씨의 소비행태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거래 유형

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이 돈이 본인과 아들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돈이 인출된 경우도 15차례나 됐다.

◇이씨 측 주장 근거=이씨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도곡동 땅과 일대는 평생 일군 내 재산”이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재산관리인인 이명박씨를 참석시켜 진술하도록 했다.

땅 매입 대금은 목장경영(젖소 400마리)과 골재채취업(태원산업), 일본 식품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중개, 전선설비업 등의 수익금으로 댔으며 매각대금은 ④

다스 주식 인수 및 증자에 14억여 원을 쓰고 나머지는 저리 투자상품에 넣었다는 것.

이와 함께 김정씨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을 관리해 김씨의 돈은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반면 자신의 돈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영배·이병모씨는 김씨가 운영한 세진개발 직원으로, 매달 1천만~4천만원씩 현금으로 찾아 자신이나 아들에게 전해주는 등 은행 심부름을 했고 매년 9~14회 출국한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영배씨는 1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이병모씨도 2차례 10여 시간씩 조사받은 것은 물론 이를테면 하루 꼴로 검찰에 들러 자료를 제출해 소환에 불응했다는 검찰 설명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윤한봉 묘지에 현화하는 손학규

지난 7월 티계한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의 천도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4일 오전 윤 전 소장 묘지에 현화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검찰총장 등 고발

한나라 공작정치투쟁위

한나라당 공작정치자자 범국민투쟁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1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가운데 이 전 시장의 큰행 상은씨 땅에 대한 차명재산 가능성을 제기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 등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상명 검찰총장과 김홍일 중앙지검장, 최재경 부장은 명확하지도 않은 결과를 중간수사 발표라는 미명하에 페의사실을 공표하고, 직권을 남용해 야당 후보의 경선을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16일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17일에는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오늘 오후 법무장관을 방문해 3인에 대한 해임 건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의 도곡동 땅 발표는 이명박 후보를 흡집내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적 수사발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광주시·전남도당 분열 심각

당원들 “경선 앞두고 당직자들 줄서기 앞장”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박근혜 측으로 갈려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광주시당 일부 당원들은 14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안제를 시당위원장이 이명박 예비후보를 도우려고 당원들을 감언이설과 혐오로 쟁여우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안 위원장은 초반에는 박근혜 후보측을 도왔다가 최근에 이명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당원은 “경선을 앞두고 중립을

지켜야 할 당직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당직자들 때문에 경선이 과열되고 선관위 고발과 같은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가연 광주북갑 당협위원장 등 6명은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의 시대정신인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며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檢 “김만제 중수부 조사때 ‘季 땅’ 진술”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고소·고발의 중간수사 결과 일(19일) 이전에 발표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라며 정치권의 ‘경선 개입 의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래 경선 전에는 (발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쳐서 시작할 때부터 특수부를 투입할 때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며 “정치권에서 얘기하듯 ‘이례적 밀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상은씨와 김정씨가 공동 소유였던 서울 도곡동 땅 가운데 이씨의 지분은 ‘제3자 소유’로 의심된다며 발표한 부분과 관련,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진짜 모른다. 이모씨 등 두 사람을 조사해 봐야 한다’며 “그 런데 이상은씨 것은 아니다. 이씨와

당사자 외에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맏형인 이상은씨로부터 계열사인 포스코개발을 통해 서울 도곡동 땅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김만제 당시 포항제철 회장(한나라당 고문)이 1999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도곡동 땅을 이 후보의 것으로 알고 본인이 직접 구매를 시지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 서울 중앙지검장 3차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한 대에 “그가 이전에 감사원이나 중수부에서 한 말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박근혜 측으로 갈려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광주시당 일부 당원들은

14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중립

을 지켜야 할 안제를 시당위원장이

이명박 예비후보를 도우려고 당원들을

감언이설과 혐오로 쟁여우기를 하

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안 위원장은 초반에는

박근혜 후보측을 도왔다가 최근에

이명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며 안

위원회에 대해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당장 정계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한나라당 광주시당협위원장 6명이 이명박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박재순 전 남도당위원장도 이명박 후보가 사유로 나온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이 후보 지지 사조직 관계자들과 함께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 당원은 “경선을 앞두고 중립을

지켜야 할 당직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당직자들 때문에 경선이 과열되고 선관위 고발과 같은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가연 광주북갑 당협위원장 등 6명은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의 시대정신인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며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고소·고발의 중간수사 결과

<경매 22개>

매각 물건 표시 및 매각 조건

시작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06타경 36774 2 서구 학정동 640 31동 4층 412호 29.23㎡ 아파트 43,000,000 일자인 있을 43,000,000

1 동구 운현동 689 운령글로벌아파트 101동 4층 406호 84.7953㎡ 아파트 170,000,000 유치원과 있고 있음. 170,000,000 일자인 있을

2006타경 41790 2 동구 688 운령글로벌아파트 101동 6층 604 아파트 180,000,000 유치원과 180,000,000 일자인 있을

3 동구 688 운령글로벌아파트 101동 7층 702 아파트 170,000,000 유치원과 있고 있음. 170,000,000 일자인 있음

2006타경 44171 1 동구 오치동 762 대중아파트 101동 4층 41 아파트 56,000,000 56,000,000

2007타경 5913 1 서구 치평동 1168-2 대우금호아파트 106동 3층 93.91㎡ 아파트 83,000,000 일자인 있을. 2007.03.06 83,000,000 (당기 21.07.26 종별)

2007타경 14009 1 동구 두왕동 63-1 두동피크랜드 101동 1층 102호 84.85㎡ 아파트 73,000,000 일자인 있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06타경 36774 1 동구 학동 637-19 55㎡ 제시외 회장실 D.8 대 35,117,020 일괄매각. 제시외 35,117,020 일자인 있을

2 동구 637-19 26.77㎡ 대 단독주택 178,872,160 일괄매각. 제시외 178,872,160 일자인 있을

2006타경 41219 1 동구 신수동 547-24 16 25.12㎡ 2층 85.45㎡ 부속건물 901-26 2.98㎡ 제시외 점포 10.8㎡ 대 190,454,180 일괄매각. 제시외 190,454,180 일자인 있을

2006타경 44751 1 동구 27.9㎡ 대 190,454,180 일괄매각. 제시외 190,454,180 일자인 있을

2 동구 898-4 1층 58.85㎡ 2층 38.19㎡ 대 단독주택 28,924,500 일괄매각. 제시외 28,924,500 일자인 있을

2006타경 46115 1 동구 명광동 59-17 33㎡ 제시외 부속도로 17㎡ 대 190,454,180 일괄매각. 제시외 190,454,180 일자인 있을

2006타경 46207 1 나주시 풍양읍 121-18 69.75㎡ [공유자 경영] 지분 211분의111 전부 제시외 84,742,500 일괄매각. 제시외 84,742,500 일자인 있을

2007타경 1824 1 광성군 국설을 잡아라 573-8 261㎡ 대 38,914,450 일괄매각. 제시외 38,914,450 건물포함. 2007년 대 38,914,450 일괄매각. 제시외 38,914,450 일자인 있을

2007타경 1819 1 광성군 풍양읍 121-6 142㎡ [공유자 경영] 지분 145분의107 전부 제시외 236,047,600 일괄매각. 제시외 236,047,600 일자인 있을

2007타경 12737 1 화순군 풍양읍 가봉리 57-3 107㎡ 대 11,664,000 일괄매각. 제시외 11,664,000 일자인 있을

2006타경 12737 1 화순군 풍양읍 가봉리 502 463㎡ 대 11,664,000 일괄매각. 제시외 11,664,000 일자인 있을

2006타경 31823 1 화순군 풍양읍 29-1 27.7㎡ 대 14.122,000 일자인 있을

[단지/임야/전기]

2006타경 21529 1 나주시 운현면 오동리 12 916㎡ [공유자 경영] 지분 1인전부 4,122,000 일자인 있을 4,122,000 일자인 있을

2 동구 52 509㎡ [공유자 장민석의 지분 2분의1] 전 1,272,500 일자인 있을 1,272,500 일자인 있을

2006타경 28179 1 광성군 풍양읍 소통리 79 443㎡ 제시외 5,759,000 위치상 매각의 여지있음 5,759,000 위치상 매각